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50일 앞두고 순천 동천을 중심으로 양측에 조성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꿈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세계 어린이 14만여명이 그린 작품으로 꾸민 이 다리는 컨테이너 30개를 연결해 만들었다. 세계 최초의 다리 미술관으로, 상하이엑스포 한국관을 디자인한 강익중 작가가 외부 디자인을 맡았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끝났다

**공정률 93%...12개 테마정원 등 핵심시설 속속 준공**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막을 50일 앞두고 국제습지센터에 이어 12개의 테마정원이 준공됐다. 테마정원은 세계 정원과 함께 이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다. 순천시는 지난 28일 “참여정원, 진입로 등 조만간 준공이 예정된 시설을 제외한 박람회장 내 핵심시설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전체 공정률이 93%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11만2000㎡에 달하는 박람회장은 하루에 순천만을 형성하는 동천을 중심으로, 서쪽에 순천만 WWT습지,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 등이, 동쪽에는 주박람회장, 순천만 바람언덕, 순천만 호수, 세계 각국의 정원 등이 자리한 구조다. 동천에 전세계 어린이들이 그린 14만 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꿈의 다리’로 양측을 연결했다. 세계 5대 습지 가운데 하나인 순천만과 함께 전세계 23개국 84개의 정원이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

이트는 약초·장미·무궁화·흑두루미·바위·어린이놀이 등의 주제로 조성한 테마정원을 꼽을 수 있다. 한방 체험관과 다양한 약초 재배 정원에서는 노루귀, 배초향 등 토종 62종은 물론 각 대륙에서 나는 천년초 등 20종의 약초를, 무궁화정원에서는 73종에 달하는 무궁화를 만날 수 있다. 34종 수만송이의 장미로 꾸며진 장미정원, 호주와 네덜란드 등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회원 19개국의 나무와 꽃을 식재한 국가나무정원,

600년을 산 팽나무와 바위로 조경한 바위공원 등도 이날 공사를 마쳤다. 세계 정원들도 이달 중순께면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국정원은 창덕궁 후원, 소쇄원·초간정·서석지, 옛 한옥 정원 등을 재현해냈다. 녹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으로 조성된 ‘늘 푸른 정원’, 식물도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나무를 심은 ‘정원 나무도감원’, 철쭉정원, 편백숲, 수목원 전망지 등이 이를 감싸고 있다. 빅토리아시대의 플라판 가든을 축소한 영국 정원, 절대왕권 상징인 베르사이유 궁전과 그 앞에 펼쳐진 프랑스 정원도 만날 수 있다. 중국의 영

풍시와 서안시가 직접 조성한 중국 정원, 풍차와 톱질로 꾸며진 네덜란드 정원, 르네상스시대 메디치가의 발라정원을 축소한 이탈리아 정원 외에 스페인정원, 일본정원, 태극정원 등도 마무리작업 중이다. 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장 내에 이제까지 모두 세계 각국의 나무 42만주와 꽃 200만주 이상을 심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꽃이 피는 개장일 무렵에는 아름다운 정원들이 순천만 일대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알림**

**오늘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열립니다**

새 봄을 여는 희망 질주  
교통통제 양해 바랍니다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3·1 만세운동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남도의 새봄을 질주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48회째 남도민의 사랑을 받아온 3·1절 마라톤대회에는 동호인·직장·가족 등 5000여명이 참가를 신청해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광주일보 창사 6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폴코스·하프코스의 경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을 출발선으로 해 광주 도심을 마라톤 열기로 물들이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치러집니다.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코스로 이용되는 일부 도로에 대한 부분적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점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 후원 | 광주지방보훈청-광주지방경찰청-한국수자원공사
- 주관 | 광주광역시생태체육회-전라남도생태체육회-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 문의 | <http://mara.kjmedia.co.kr> 062-220-0541

- 협찬 | KJB 광주은행 NH LH
- 안녕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2013 광주봄꽃백일회 TONYMOLY
- 한빛스피릿(가죽) LOTTE SK telecom
- TrekSta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 (주)송원 HYOSUNG



## 토목공사에 와르르... 전남대 토목공학과 ‘오욕’

시공사 심의 비리 등 구속·수사 교수 5명중 1명 남아 강의할 듯

62년 전통의 전남대 토목공학과가 흔들리고 있다. 대학 설립과 함께 개설돼 ‘토목 전문가의 산실’이자 전남대의 역사나 다름없는 토목공학과와 교수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 심사 관련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전남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남대 토목공학과와 5명 교수 중 1명은 이미 ‘논문장사’로 해임됐고, 2명은 비리 혐의로 구속(광주 총인사실비리)·불구속(낙동강 사업)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또 다른 교수 1

명은 정부의 4대강(낙동강) 사업 관련 시공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언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지 장담할 수 없다. 전남대 토목공학과와 불명예는 4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9년 김모(54) 교수가 대필 등을 통해 산업대학원생 논문 작성과 심사 통과를 돕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사 후수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심사의원이 된 이

학과 교수들은 업체들의 로비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먼저 광주시가 발주한 총인사실비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박모(52)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최근에는 또 다른 김모(59) 교수가 낙동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또 다른 1명의 교수가 낙동강사업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측은 교수가 기소될 경우 직위를 해제하고 있어 이들 교수는 강

단에 설 수 없다. 결국 5명의 교수 중 1명만이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시간강사가 대신 수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학생들은 시간강사의 대리 강의를 들어야하고,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가 사라지면서 자신의 진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공수업 부실로 인해 졸업생들의 취업전선에 먹구름이 깔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전남대는 물론 조선대, 목

포대, 동신대 등 4대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토목학계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채희성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1984. 10 창간  
月刊 藝鄉  
2002. 2 휴간

2013. 4

# 예능향

藝鄉

그 설레는 재회